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1.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목차

일련 번호	처분요구 종 류	제 목	쪽번호
1	문 책	원자력 기기검증 용역 업무 부당 처리 등	1
2	통 보	원자력 기기검증 용역 업무 부당 처리	14
3	주의·통보	연구직원 창업기업 사후관리 등 부적정	19

2.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 별첨

감 사 원

문 책 요 구

제 목 원자력 기기검증 용역 업무 부당 처리 등

소 관 청 한국기계연구원

관 계 기 관 한국기계연구원 본원

문 책 대상자 ①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송OO
(전 원자력산업기기사업단장)

② 한국기계연구원 환경·에너지연구본부 원자력산업기기연구실
실장 김OO

문 책 종 류 ① 송OO(해임) ② 김OO(정직)

문 책 사 유

위 사람들 중 김OO은 2006. 12. 12.부터 2012. 8. 31. 현재까지 한국기계연구원¹⁾(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원자력산업기기사업단장 등²⁾의 직위에서, 김OO은 2009. 1. 16.부터 2012. 8. 31. 현재까지,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각각 연구원 위 사업단 선임연구원 등³⁾의 직위와 신기술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유한회사 OOO(대표이사 송OO, 이하 “XXX”라 한다)의 보육닥터⁴⁾로서 외부기관⁵⁾으로부터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2011. 2. 14.부터 같은 해 8. 31.까지는 원자력산업기기연구센터장(조직개편)으로 근무하였고, 2011. 9. 1. 이후부터는 책임연구원 신분으로 미국으로 파견 간 상태에서 원자력 기기검증 용역 업무에 관여

3) 2009. 1. 16.부터 2011. 2. 13.까지는 원자력산업기기사업단, 2011. 2. 14.부터 같은 해 8. 31.까지는 원자력산업기기연구센터(조직개편) 소속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1. 9.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원자력산업기기연구센터장 직무대리로 근무하였으며 2012. 1. 1.부터 같은 해 8. 31. 현재까지는 원자력산업기기연구실장(조직개편)으로 근무

4) 신기술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수행

5) 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부품을 납품하기 전에 부품의 안전성을 사전 검

터 원자로시설에 사용되는 도장재, 밸브 등 부품의 안전성 시험을 의뢰받아 「품질 절차서」⁶⁾ 규정에 따라 해당 부품이 발전소 수명 기간 동안 이상 없이 정상동작할 수 있는지 등을 검증하는 원자력 기기검증(EQ: Equipment Qualification)⁷⁾ 용역 업무를 총괄 또는 담당하거나 OOO에 대한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⁸⁾하였다.

1. 송OO의 경우

위 사람은 위 연구원 「창업지원규정」 제7조, 제8조, 제11조 및 「겸직승인요령」 제3조에 따라 2008. 6. 9. “원자로 비상노심냉각계통 재순환용 피동여과장치⁹⁾ 국산화 및 시험업무 대행(원자력 기기검증 대행업체)”을 목적으로 연구원으로부터 창업 승인을 받아 같은 해 7. 1. OOO를 설립한 후 원자력산업기기사업단장과 OOO의 대표이사¹⁰⁾를 겸직¹¹⁾하였다.

가. 연구원의 장비·인력을 무단·무상 사용하여 부당 이익 취득

위 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업무기준」 제6조, 제7조 및 ‘수탁연구사업 관련 작성기준’ 등에 따르면 의뢰처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으면 연구책임자는 의뢰처와 연구범위 및 예산을 협의한 다음 연구관리부서에 계약 체결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용역비는 연구원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증하고자 하는 납품업체나 이를 대행하고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업체(원자력 기기검증 대행업체)

6) 한국기계연구원은 2006. 10. 4. 「품질절차서」 제정 후 2008. 2. 11. OOO로부터 검증받아 시험의뢰계약의 검토 등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

7) 내환경시험(설계기준사고 시험, 방사능 시험, 진동 시험)과 내진시험으로 구분되며, 원자력발전소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나 용역수행기관 등이 기기검증을 할 때는 해당 시험장비를 갖춘 원자력 기기검증 기관에 의뢰하게 되는데, 한국기계연구원은 2003년 4월(날짜 모름) 원자력 LOCA 시험설비를 갖추고 내환경시험 중 설계기준사고 시험 검증기관으로 OOO로부터 2008. 2. 11. 인증받아 관련 시험을 수행하였음[2011. 8. 22.부터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에 의해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음]

8) OOO은 신기술창업보육센터로부터 기술지도비로 총 1,790,000원을 받았음

9) 냉각재를 원자로로 주입할 때 원자로 건물 바닥으로 냉각재와 비상노심냉각수를 여과하는 설비

10) 2008. 7. 1.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송OO이었으나 2009. 6. 30. 겸직기간이 종료되면서 연구원 창업보육센터에서 퇴거한 다음 같은 해 11. 5. 대표이사 명의를 배우자 김OO(미술학원 원장)로 변경

11) 연구원으로부터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겸직승인을 받았고, 2009. 7. 1.부터 2012. 8. 31. 현재까지는 창업기업 겸직승인을 받지 않은 채 XXX를 실질적으로 운영

또한 위 연구원 「행동강령규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각종 연구용 또는 업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등 연구원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위 연구원 「인사규정」 제24조에 따르면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연구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000를 설립하기도 전인 2008년 5월 말(날짜 모름) 주식회사 000(대표이사 이○○, 이하 “000”이라 한다)에서 연구원에 의뢰한 “고리1호기 도장재의 로카(LOCA)¹²⁾ 환경 건전성 시험”을 연구원과 계약하도록 하지 않고 ‘자신이 창업하려는 000와 계약하여도 연구원과 계약한 것과 동일하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상대방을 오인¹³⁾하게 하여 000와 계약을 체결(계약기간: 2008. 6. 2.~2008. 9. 30., 계약금액: 7,700만 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2010년 9월경(날짜 모름) 주식회사 삼신(대표이사 박○○, 이하 “삼신”이라 한다)에 ‘000와 계약하는 경우 약간 낮은 비용을 지급하여도 되며 연구원 창업보육센터인 000의 연구결과는 연구원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000와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등 2008. 6. 2.부터

12) 냉각재 상실사고(Loss of Coolant Accident): 원자력발전소의 냉각계통에 발생하는 사고 상황에 원자력기기를 노출시켜 기기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설계기준사고의 대표적인 시험임

13) 송○○이 연구원으로부터 창업승인(2008. 6. 9.)을 받거나 000를 설립(2008. 7. 1.)하기 전인 2008. 6. 2. 000과 000 간에 설계기준 사고시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000의 담당자인 조○○이 한국기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 원자력산업기기 사업단에 방문하자, 송○○이 조○○에게 ‘시험검증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그 소속 연구원(研究員)과 연구장비로 하는데, 계약은 000와 체결하라’고 요구하였고, 조○○은 000라는 회사를 연구원에서 설립한 회사라고 생각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임

2011. 9. 1.까지 [별표 1] “OOO와 계약을 체결한 원자력 기기검증 용역 등 명세”와 같이 OOO 등 8개 업체¹⁴⁾와 총 11건의 원자력 기기검증 용역을 연구원이 아니라 자신이 설립한 OOO와 계약(총 계약금액: 17억 7,990만 원¹⁵⁾)하도록 하였다.¹⁶⁾

이후 위 사람은 자신이 창업한 OOO 명의로 미래와도전 등 발주처로부터 수탁한 11개 용역계약을 위 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업무기준」 제6조 등에 따라 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소속 부하 직원 김OO 등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로카(LOCA) 시험장비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용역을 수행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신뢰성 극저온/고온 밸브 개발” 등 자신이 연구 중인 연구원 과제 및 지식경제부 수탁연구과제 연구비에서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유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위 11개 용역을 수행하게 하였고, 그 중 주식회사 일신밸브 및 삼신과의 용역을 제외한 9개 용역결과 보고서를 무상으로 OOO에 제공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부당하게 업무지시를 하였다.

그 결과 OOO에서는 연구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제출받은 원자력 기기검증 용역보고서에 단순히 OOO의 검토표지만 붙여 미래와도전 등 8개 업체에 제공¹⁷⁾하고 그 대가로 계 16억 9,740만 원의 수입을 부당하게 얻게 된 반면, 위 연구원

14) ① OOO의 경우 각주 13)와 같이 설립되지도 않은 OOO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② 삼신의 용역을 수주하면서 OOO를 연구원의 창업보육센터라고 속인 점(송OO이 2010. 9. 13. 삼신 담당자에게 보낸 전자메일) ③ (사)OOO, OOO, OOO 등 3개(6건의 용역) 업체는 원자력 기기검증 대행업체인데 대행업체가 기기검증을 연구원에 의뢰하지 않고 또 다른 대행업체인 OOO에 의뢰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의뢰처에서 해당부품에 대한 기기검증 보고서로 연구원 명의의 최종보고서를 발주처 [OOO 등]에 제출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구원이 아닌 OOO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임

15) 2012. 6. 12. 현재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계약금액 17억 7,990만 원보다 8,250만 원이 적은 사유는 11개 용역 중 2012. 6. 12. 현재 종료되지 않은 2개 용역의 잔금(삼신의 경우 1억 1,550만 원의 잔금이 남아 있음)과 추가비용[OOO의 경우 추가비용 발생으로 계약금액보다 3,300만 원을 더 받음] 발생 때문임(17억 7,990만 원-1억 1,550만 원+3,300만 원=16억 9,740만 원)

16) OOO는 연구시설이나 장비 및 인력이 없어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는 불가능

17) 최종적으로는 OOO에 제출됨

은 같은 금액 상당의 수입을 얻지 못하였고 인력과 장비 무단·무상 사용으로 인한 손해와 유류비 5,716만여 원¹⁸⁾ 등의 손해가 발생¹⁹⁾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위 사람은 해당 용역은 국내외 다른 기관에서도 수행이 가능하여 타 기관에서 용역을 수주할 수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연구원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2010. 11. 1. 000가 연구원과 기술지도 등이 포함된 기술이전계약(계약기간: 2010. 10. 30.~2012. 12. 31.)을 체결하여 자신이 취득한 이득의 일부인 2억 5,000만 원을 기술료 명목으로 납부하였고, 위 11개의 용역에 참여한 연구원 직원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2억여 원과 000가 용역수행과정에서 직접 집행하였거나 집행할 비용 등을 감안하면 연구원에 손해를 끼친 금액은 1억 5,000만 원²⁰⁾ 정도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람은 원자력산업기기사업단장의 직위에서 2010. 9. 13. 원자력기기검증을 의뢰하려는 발주처에 견적서를 보낸 후 실제 계약할 때에는 000가 연구원의 창업보육센터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000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이 명백하고, 위 11개 용역의 경우 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원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장비, 인력 및 유류 등을 무단·무상으로 이용하여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위 사람은 000에서 연구원에 지급한 기술료 2억 5,000만 원에 위 11개 연구 용역 수행과 관련한 장비사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

18) 2008. 3. 5.부터 2011. 5. 24.까지 142,524ℓ(147,569,856원)를 구매하여 000의 용역과 관련하여 55,213ℓ(추정금액: 57,167,736원=147,569,856원×55,213ℓ/142,524ℓ)를 부당 사용함

19) 감사원에서 2012. 8. 23. 송OO에 대하여 배임 혐의로 수사요청 후 검찰에서는 정당 수탁용역계약금액(부가세 포함) 1,811,770,200원을 배임금액으로 구속기소하여 형사소송 중임

20) 000 수입금에서 연구원 직원 김OO 등 3명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후 되돌려 받은 금액 4,970만여 원, 미술학원 강사료로 지급한 8,327만여 원, 자신의 집수리비로 사용한 2,530만여 원 등

기술실시계약 체결 결정을 의뢰한 기술사업실장은 000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000 명의로 수탁한 용역을 이와 같이 수행하고 용역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000에 무상 제공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확인²¹⁾해주었고 연구원은 2010. 11. 10. 000로부터 받은 2억 5,000만 원 전체를 기술료로 판단하여 위 연구원 「인센티브 지급규정」 제20조에 따라 이 중 60%인 1억 5,000만 원을 기술개발자인 위 사람을 포함한 3명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000에서 연구원 직원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2억여 원은 연구원과 000가 정상적으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연구원의 수입으로 계상한 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원의 수익²²⁾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연구원에 손해를 끼친 금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위 사람의 주장은 변명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 금품수수 및 부하직원의 계좌를 이용하여 창업기업의 수입금을 횡령

위 연구원 「행동강령규정」 제2조 제3호 가목, 제15조 제2항 및 제18조 등에 따르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인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부터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전을 차용하지 않아야 한다.²³⁾

그리고 같은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위 연구원 「인사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직원은 연구원의 명예와 위신

21) 송00은 000 명의로 수탁한 용역 내용과 000가 수탁한 용역 수행을 위해 연구원의 장비, 인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기술실시계약을 체결

22) 선임연구원 박00 등 3명이 위 11개 용역 중 3개의 용역을 수행해주고 000로부터 2008. 9. 2.과 같은 해 10. 29. 두 차례에 걸쳐 받은 자문료는 계 1억 200만 원이나 이를 연구원에서 정상적으로 수탁했을 경우에 지급해야 될 인센티브는 994만여 원에 불과

23) 부득이하게 금전을 차용할 때에는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을 손상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연구원에서 2010. 11. 10. 자체 「기술이전 운영요령」 제7조에 따라 “유체연속 토출장치”²⁴⁾ 기술을 000에 이전²⁵⁾하고 000로부터 받은 기술료 2억 5,000만 원 중 자체 「인센티브 지급규정」 제20조에 따라 기술료 인센티브로 같은 해 12. 1. 공동 기술개발자인 위 사람에게 6,000만 원, 김OO에게 4,500만 원, 김OO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사람은 원자력산업기기사업단장의 직위에서 부하직원인 김OO이 기술료 인센티브로 받은 4,5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되돌려 받아²⁶⁾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 사람은 000 수입금의 일부를 횡령할 목적으로 [별표 2] “한국기계연구원 직원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되돌려 받은 자문료 명세”와 같이 2009. 4. 9.부터 2011. 7. 19. 사이에 000가 지급할 사유가 없거나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26회에 걸쳐 계 128,668,000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부하 직원인 김OO 등 9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자신과 김OO(처) 및 000 직원인 김OO²⁷⁾ 계좌로 계 93,693,320원을 되돌려 받는 등 횡령하여²⁸⁾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2. 김OO의 경우

24) 연구원 기관주요사업으로 “고신뢰성 극저온/고온밸브 개발”(개발기간: 2010. 1. 1.~2010. 12. 31. 사업비: 8억 3,336만 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유체연속 토출장치를 개발하였고, 2010. 8. 12. 특허 출원한 후 같은 해 11. 16. 특허 등록(출원번호: 2010-0077777, 출원인: 한국기계연구원, 공동개발자: 송OO, 김OO, 김OO)

25) “유체연속 토출장치”의 개발자이자 000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송OO이 위 연구원에 기술 이전 신청을 하여 기술 이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송OO은 000가 위 기술로 상품을 개발할 목적으로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자력 기기검증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연구원의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연구원에서는 「기술이전 운영요령」에 따라 000에 정상적으로 기술을 이전한 것이라고 함

26) 김OO도 금전대차 관계를 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는 등 돌려받을 생각 없이 송OO에게 2,5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

27) 000는 000와 친척 관계

28) 2012. 12. 12. 구속 기소 시에 2008. 10. 29.부터 2012. 3. 30.까지 000의 수입금에서 총 5억 3천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포함

가. 창업기업의 용역 부당 수행 등

위 연구원 「행동강령규정」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되고, 각종 연구나 업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등 연구원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연구원 소속 연구직원은 연구원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원자력 기기검증 용역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구원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원 소유의 장비 및 유류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09. 12. 1.부터 2012. 6. 12. 현재까지 [별표 1] “OOO와 계약을 체결한 원자력 기기검증 용역 등 명세”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의뢰받은 “밸브 구동기 기기검증 시험연구” 등 8개²⁹⁾ 원자력 기기검증 용역(금액: 15억 1,140만 원)을 원자력산업기기사업단장 송OO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면서 의뢰업체와 OOO 사이에만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연구원과는 아무런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용역의 수익을 연구원이 아닌 OOO가 취득하여 연구원에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도 연구원의 장비, 인력과 유류 등을 무단 사용하여 용역을 수행한 후 연구원 명의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³⁰⁾ 여기에 자신이 직접 검토자로 서명을 하여 OOO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9) [별표 1] 연번 4~11까지의 원자력 기기검증 용역

30) 8개 용역의 기기검증을 수행하면서 6개 용역은 완료하였고, (OOO와 OO 등 2개 업체 관련 용역은 OOO가 2009. 12. 1.과 2010. 10. 1. 각각 수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다 2011. 9. 1. 연구원에서 OOO와 민간수탁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12. 8. 31. 현재 수행 중(책임연구원: OOO)

한편 위 연구원 「품질절차서」 “시험의뢰계약의 검토절차서” 5. 2. (8)에 따르면 시험요원은 시험항목별로 산출한 “시험수수료 산출내역”을 기술책임자로 부터 확인받아 이를 기술사업실로 통보하도록 하고 시험수수료를 시험실시 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위 규정에 따라 시험항목별로 산출한 “시험수수료 산출내역”에 결재를 하고서도 이를 기술사업실에 통보하도록 하지 않았다.

그 결과 000에서는 연구원의 인력, 장비 및 유류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계 15억 1,140만 원의 수입을 부당하게 얻게 된 반면, 연구원은 같은 금액 상당의 수입을 얻지 못하였고 인력 및 장비 등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손해와 유류비 4,921만여 원 상당의 손해³¹⁾가 발생하였다.

나.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허위 보고

위 사람은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원자로 비상노심냉각계통 재순환용 피동여과장치” 개발을 주목적으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000에 대한 기술지도 등을 하고 「입주기업 지원보고서」를 작성하여 창업보육센터에 제출하는 등 보육닥터 업무를 수행하였다.

연구원 「신기술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7조, 제18조, 제20조 등에 따르면 연구원창업보육센터에서는 입주자의 기술수준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닥터 등을 지정하여 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고 보육닥터로부터 분기별로 「입주기업 지원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창업기업 입주자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운영위원회 심의·

31) 2008. 3. 5.부터 2011. 5. 24.까지 구입한 총 142,524ℓ(147,569,856원) 중에서 김00이 수행한 000의 8개 용역과 관련하여 47,531ℓ(추정금액: 49,213,766원=147,569,856원×47,531ℓ/142,524ℓ)를 사용함

의결을 거쳐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000에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지원보고서」를 실제 기술지도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000가 위 피동여과장치 개발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000가 실제 피동여과장치를 개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직접 기술지도를 한 것처럼 「입주기업 지원보고서」를 작성하여 창업보육센터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창업보육센터에서는 000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여 입주계약 해지 등의 조치 등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위 사람은 직상급자인 송OO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으며, 시험수수료 산출내역 상의 본인 서명은 위조된 것으로 누가 작성하였는지 모르고 「품질절차서」 규정에 따른 시험수수료 산출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는지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 연구원 「행동강령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우 이에 따르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도 위 사람은 2010년부터 2년 이상 장기간 해당 용역 실무책임자로서 위촉연구원을 지휘·통솔하여 실제 시험과 보고서 작성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000 창업보육닥터로서 사실과 다른 「입주기업 지원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창업보육센터에 허위 보고하는 등 송OO의 지시를 이행할 경우 연구원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송OO의 부당행위를 도와주거나 방치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품질절차서」에 따른 시험수수료 산출내역은 규정에 따라 반드시 산출·작성하여야 하는 것이고 해당 서류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도 받았던 것이므로 연구담당자로서 이러한 규정을 몰랐다고 답변하는 것은 변명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사람들 중 송OO의 행위는 위 연구원 「인사규정」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및 「행동강령규정」 제15조 등에 위배된 것으로 위 연구원 「징계요령」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고, 김OO의 행위는 위 연구원 「인사규정」 제20조 등에 위배된 것으로 「징계요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한국기계연구원장은 위 사람들을 한국기계연구원 「징계요령」 제5조와 제12조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XXX와 계약을 체결한 원자력 기기검증 용역 등 명세

(금액단위: 천 원)

연번	발주자 (의뢰처)	계약자	계약명	계약기간	금액	결과보고서 제출일
1	000	000	고리1호기 도장재의 LOCA 환경 건전성시험	2008. 6. 2. ~ 2008. 9. 30.	77,000	2008. 8. 8.
2	000	"	원자력발전소용 안전등급 리밋스위치 with ECSA 기기검증	2008. 8. 1. ~ 2008. 9. 12.	55,000	2008. 11. 7.
3	000	"	모터 기능시험 및 기술자문 용역	2008. 10. 1. ~ 2009. 2. 19.	54,000	2009. 2. 19.
4	000	"	밸브 구동기 기기검증 시험연구	2009. 12. 1. ~ 2011. 2.28.	473,000	진행 중
5	000	"	도장재 DBA 시험	2010. 1. 4. ~ 2010. 2. 28.	59,400	2010. 3. 11.
6	000	"	도장재 DBA 시험	2010. 2. 19. ~ 2010. 4. 21.	60,500	2010. 4. 30.
7	000	"	도장재 DBA 시험	2010. 3. 25. ~ 2010. 4. 30.	88,000	2010. 4. 30.
8	(000	"	도장재 DBA 시험	2010. 5. 31. ~ 2010. 7. 21.	77,000	2010. 8. 11.
9	000	"	도장재 DBA 시험	2010. 12. 27. ~ 2011. 5. 31.	143,000	2011. 3. 28. 2011. 6. 27.
10	(000	"	공압구동기 시작품 Baseline 성능시험, 내진 및 내환경 기기검증 시험	2010. 10. 1. ~ 2011. 9. 30.	550,000	진행 중
11	000	"	도장재 DBA 시험	2011. 9. 1. ~ 2011. 12. 31.	60,500	2011. 12. 7.
합 계					1,697,400	

- 주: 1. 금액은 000 계약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부가가치세 포함)
2. 1~3, 5~9, 11번의 9개 용역은 연구원에서 외주용역 없이 수행·종료되었고, 4, 10번의 2개 용역은 연구원에서 외주용역(비용은 000가 부담)을 주면서 수행 중(2012. 6. 12. 현재)
3. 4, 10번의 2개 용역(금액: 10억 2,300만 원)은 000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원에서 수행하다가 XXX이 2011년 9월 미국으로 파견을 가게 되면서 위 용역수행을 마무리하기 위해 000가 연구원에 두 업체의 용역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탁계약을 체결(금액: 8,000만 원)하여 2012. 6. 12. 현재 연구원에서 수행 중
4. 11번의 용역은 2011년 9월 000의 미국 파견 이후 000(파견근로자)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임

자료: 000 자료 재구성

[별표 2]

한국기계연구원 직원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되돌려 받은 자문료 명세

(금액단위: 원)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지급 건수	지급일자	지급액	돌려받은 일자	돌려받은 금액	비고
1	원자력산업 기기사업단	위촉연구원	김OO	6	2010. 12. 21. 외 5건	21,154,000	2010. 12. 21. 2010. 12. 24.	11,472,000	
2	"	"	김OO	2	2011. 7. 19. 외 1건	39,000,000	2010. 2. 25. 2011. 7. 19.	37,284,000	퇴직
3	"	"	김OO	6	2010. 12. 22. 외 5건	17,954,000	2010. 4. 19. 2010. 12. 22.	8,692,000	
4	"	선임연구원	손OO	2	2010. 12. 21.	15,000,000	2010. 12. 21.	13,384,000	
5	"	위촉연구원	장OO	1	2010. 12. 21.	14,000,000	2010. 12. 21.	13,384,000	퇴직
6	"	"	홍OO	6	2010. 12. 21.	19,580,000	2010. 12. 21.	7,648,000	
7	"	"	염OO	1	2009. 4. 9.	850,000	2009. 4. 9.	785,310	
8	"	"	최OO	1	2009. 4. 9.	280,000	2009. 4. 9.	258,700	
9	"	"	이OO	1	2009. 4. 9.	850,000	2009. 4. 9.	785,310	퇴직
합 계				26		128,668,000		93,693,320	

자료: 000 자료 재구성(소득공제금액 제외)

감 사 원

통보(인사자료)

제 목	원자력 기기검증 용역 업무 부당 처리
소 관 청	한국기계연구원
관 계 기 관	한국기계연구원 본원
통보 대상자	① 한국기계연구원 환경·에너지기계연구본부 에너지플랜트안전연구실 선임연구원 임OO (전 원자력산업기기사업단 선임연구원) ② 한국기계연구원 극한기계부품연구본부 열공정극한기술연구실 선임연구원 송OO (전 원자력산업기기사업단 선임연구원) ③ 한국기계연구원 환경·에너지기계연구본부 에너지플랜트안전연구실 선임연구원 박OO (전 원자력산업기기사업단 선임연구원)

내 용

위 사람들 중 임OO와 박OO는 2006. 12. 12.부터 2008. 12. 31.까지, 송OO는 2008. 1. 31.부터 2008. 12. 31.까지 각각 한국기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원자력산업기기사업단¹⁾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외부기관²⁾으로부터 원자로시설에 사용되는 도장재, 전기스위치 등 부품의 안전성 시험을 의뢰받아 해당 부품이 발전소 수명 기간 동안 이상 없이 정상동작할 수 있는지 등을 검증하는 원자력 기기검증(EQ: Equipment Qualification)³⁾ 용역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각각 에너지기계연구본부 소속 연구직원으로 원자력산업기기사업단 검직 발령 명령을 받아 근무

2) 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부품을 납품하기 전에 부품의 안전성을 사전 검증하고자 하는 납품업체나 이를 대행하는 업체(원자력 기기검증 대행업체)

3) 내환경시험(설계기준사고 시험, 방사능 시험, 진동 시험)과 내진시험으로 구분

위 연구원 「행동강령규정」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되고, 각종 연구나 업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등 연구원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연구원 「인사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직원은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타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위 연구원의 「품질절차서」 “시험의뢰계약의 검토절차서” 5. 2. (8)에 따르면 시험요원은 시험항목별로 산출한 “시험수수료 산출내역”을 작성하여 기술책임자로부터 확인받아 이를 기술사업실로 통보하고 시험실시 전 시험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사람들은 원자력산업기기사업단장인 송OO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미래와도전의 “고리1호기 도장재의 LOCA 환경 건전성 시험” 용역이 연구원과 체결된 용역이 아니라 송OO과 자신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유한회사 OOO(대표이사 송OO, 이하 “OOO”라 한다)와 체결된 용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구원 시험장비를 이용하여 용역을 수행한 다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OOO에 제공하는 등 2008. 6. 2.부터 2008. 12. 31.까지 [별표] “연구원에서 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수행한 원자력 기기검증 용역 등 명세”와 같이 연구원이 아닌 OOO와 계약이 체결된 3개 용역(계약금액 계 1억 8,600만 원)에 대해 연구원 장비, 인력 및 유류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를 수행하고 무상으로 OOO에 보고서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들은 「품질절차서」 “시험의뢰계약의 검토절차서” 5. 2. (8)에

따라 시험항목별로 산출한 “시험수수료 산출내역”을 작성하거나 결재를 하고서도 이를 기술사업실에 통보하도록 하지 않았다.⁴⁾

또한, 위 사람들은 000로부터 3개 용역을 수행해 준 대가로 2008. 9. 2.과 같은 해 10. 29. 2회에 걸쳐 박OO는 4,100만 원, 송OO, 임OO는 각각 3,050만 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위 사람들이 송OO과 함께 출자한 000는 계 1억 8,600만 원의 수입을 부당하게 얻게 된 반면 연구원은 같은 금액 상당의 수입을 얻지 못하였고 인력, 장비 등을 무단·무상으로 사용하여 손해⁵⁾가 발생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 사람들은 연구원과 계약이 체결된 용역인 것으로 알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XXX로부터 받은 금액도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자문료로 받은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연구관리부서에서 연구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연구원 「연구사업관리 규정」 제13조에 따라 해당 연구사업 계정번호를 부여하여 연구책임자와 관련 부서 등에 통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송OO과 공동으로 원자력 기기검증 대행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창업신청⁶⁾을 하였고 송OO과 공동으로 창업기업인 000에 출자하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되지 않은 000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구원의 장비 등을 무단·무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4) 위 사람들 중 임OO는 3개 용역 중 1개는 직접 서명한 것이고 나머지 2개의 시험수수료 산출내역상의 본인 서명이 위조되어 있으며 누가 산출내역을 작성하였는지 몰랐다고 진술

5) 감사원에서 2012. 8. 23. 송OO에 대하여 배임혐의로 수사요청한 후 검찰에서는 위 3개 수탁용역금액(부가세 포함) 270,678,500원을 포함하여 000 관련 11개 수탁용역금액 1,811,770,200원을 손해로 인한 배임금액으로 구속기소하여 형사소송 중임

6) 2008. 5. 29. 창업신청을 하였으나 송OO에 대하여만 창업승인되고 박OO 등 3명은 연구원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미승인

그리고 위 사람들은 위 연구원 「행동강령규정」 제24조에 따르면 대가를 받고 자문을 할 때에는 원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000와 정상적인 수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자체 「인센티브 지급 규정」 제16조에 따라 위 사람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금액은 각각 994만여 원⁷⁾인데도 이보다 박00는 3,106만 원, 송00와 임00는 각각 2,056만여 원을 더 받은 것이므로 위 금액이 자문료라는 위 사람들의 변명도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위 연구원 「인사규정」 제20조, 제24조 및 제25조에 위배된 것으로 「징계요령」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위 사람들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비위내용을 통보하오니 한국기계연구원장은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 수탁용역계약금액[000 84,025,000원, 00099,541,000원, 000 64,939,000원, 계 248,505,000원]의 최대 내부흡수율[(내부인건비+개발보전비)/총연구비] 40%인 99,402,000원에 10% 인센티브율을 곱한 금액임

[별표]

연구원에서 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수행한 원자력 기기검증 용역 등 명세

(금액단위: 천 원)

연번	발주자 (의뢰처)	계약자	계약명	계약기간	금액	결과보고서 제출일
1	000	000	고리1호기 도장재의 LOCA 환경 건전성시험	2008. 6. 2. ~ 2008. 9. 30.	77,000	2008. 8. 8.
2	000	"	원자력발전소용 안전등급 리밋스위치 with ECSA 기기검증	2008. 8. 1. ~ 2008. 9. 12.	55,000	2008. 11. 7.
3	000	"	모터 기능시험 및 기술자문 용역	2008. 10. 1. ~ 2009. 2. 19.	54,000	2009. 2. 19.
합 계					186,000	

주: 1. 금액은 000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부가가치세 포함)

2. 3개 용역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외주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종료되었고, 한국기계연구원 명의의 최종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어 000 등에 제출된 것임
3. 박00 등 3명은 감사원 문답·확인서 작성 시 3개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질문·답변 시 2008년 11월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면서 000관련 용역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최초 진술에 따라 작성함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의요구 · 통보

제 목 연구직원 창업기업 사후관리 등 부적정

소 관 청 한국기계연구원

관 계 기 관 한국기계연구원 본원

내 용

한국기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자체 「창업지원규정」에 따라 2008. 6. 9. 소속 연구원(研究員, 이하 “연구직원”이라 한다)인 원자력산업기기사업 단장 송OO의 창업¹⁾을 승인한 후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였다.

위 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업무기준」 제3조, 제6조, 제7조 및 ‘수탁연구사업 관련 작성기준’ 등에 따르면 의뢰처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으면 의뢰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수탁과제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용역비는 연구원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연구원 「행동강령규정」 제12조와 제13조 및 「인사규정」 제24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되고, 연구원 장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해서는 아니 되며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연구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연구원 「창업지원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창업자가 사업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영위하거나 연구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창업지원을

1) 업체명: OOO(이하 “OOO”라 한다)

중단하거나 창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창업자 선정 등을 취소하는 경우 창업자는 즉시 연구원에 복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연구원 「창업지원규정」 제1조에 따르면 지원대상인 창업은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의 결과로서 획득한 기술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창업자의 사업내용이 연구원 수행업무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연구직원인 창업자가 연구원 수행업무와 연관된 내용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직위 등을 이용하여 연구원 장비 등을 무단 사용하는 등으로 연구원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창업자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 송OO은 000를 설립하기도 전인 2008년 5월 말(날짜 모름) 주식회사 000(대표이사 이OO, 이하 “000”이라 한다)에서 연구원에 의뢰한 “고리1호기 도장재의 로카(LOCA)²⁾ 환경 건전성 시험”을 연구원과 계약하도록 하지 않고 ‘자신이 창업하려는 000와 계약하여도 연구원과 계약한 것과 동일하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상대방을 오인³⁾하게 하여 000와 계약을 체결(계약기간: 2008. 6. 2.~2008. 9. 30., 계약금액: 7,700만 원)하도록 하였고, 2010년 9월경(날짜 모름) 주식회사 OO(대표이사 박OO, 이하 “OO”이라 한다)에 ‘000와 계약하는 경우 약간 낮은 비용을 지급하여도 되며 연구원 창업보육센터인 000의 연구결과는 연구원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XXX와 계약체

2) 냉각제 상실사고(Loss of Coolant Accident): 원자력발전소의 냉각계통에 발생하는 사고 상황에 원자력기기를 노출시켜 기기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설계기준사고의 대표적인 시험임

3) 송OO이 연구원으로부터 창업승인(2008. 6. 9.)을 받거나 000를 설립(2008. 7. 1.)하기 전인 2008. 6. 2. 000과 000 간에 설계기준 사고시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000의 담당자인 조OO이 한국기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 원자력산업기기사업단에 방문하자, 송OO이 조OO에게 ‘시험검증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그 소속 연구원(研究員)과 연구장비로 하는데, 계약은 000와 체결하라’고 요구하였고, 000은 000라는 회사를 연구원에서 설립한 회사라고 생각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임

결을 유도하는 등 2008. 6. 2.부터 2011. 9. 1.까지 [별표] “OOO와 계약을 체결한 원자력 기기검증 용역 등 명세”와 같이 미래와도전 등 8개 업체⁴⁾와 총 11건의 원자력 기기검증 용역을 연구원이 아니라 자신이 설립한 OOO와 계약(총 계약금액: 17억 7,990만 원⁵⁾)하도록 하였다.⁶⁾

그리고 송OO은 자신이 창업한 OOO 명의로 미래와도전 등 8개 업체와 체결한 위 11개 용역계약을 위 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업무기준」 제6조 등에 따라 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소속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원자력산업 기기사업단 소유인 로카(LOCA) 시험장비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신뢰성 극저온/고온 밸브 개발” 등 자신이 연구 중인 연구원 과제 및 지식경제부 수탁연구과제 연구비에서 구입하여 보관 중인 유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11개 용역을 수행하게 하였고, 용역결과보고서를 무상으로 OOO에 제공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부당하게 업무지시를 하였다.

이후 송OO은 연구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얻은 용역보고서에 단순히 OOO의 검토표지만 붙여 발주처에 제공한 뒤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가를 OOO 수입금으로 수령하였다.

그런데도 연구원에서는 송OO의 이러한 창업기업 사업 행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

4) ① OOO의 경우 설립되지도 않은 OOO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② 삼신의 용역을 수주하면서 OOO를 연구원의 창업보육 센터라고 거짓말한 점(송OO이 2010. 9. 13. 삼신 담당자에게 보낸 전자메일) ③ OOO, 미래와도전, OOO 등 3개(6건의 용역) 업체는 원자력 기기검증 대행업체인데 대행업체가 기기검증을 연구원에 의뢰하지 않고 또 다른 대행업체인 OOO에 의뢰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의뢰처에서 해당부품에 대한 기기검증 보고서(11개 중 9개)로 연구원 명의의 최종보고서를 발주처[OOO 등]에 제출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업체들은 OOO가 아닌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것임

5) 2012. 6. 12. 현재 OOO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계약금액 17억 7,990만 원보다 8,250만 원이 적은 사유는 11개 용역 중 2012. 6. 12. 현재 종료되지 않은 2개 용역의 잔금(삼신의 경우 1억 1,550만 원의 잔금이 남아 있음)과 추가비용OOO의 경우 추가비용 발생으로 계약금액보다 3,300만 원을 더 받음] 발생 때문(17억 7,990만 원-1억 1,550만 원+3,300만 원=16억 9,740만 원)

6) OOO는 연구시설이나 장비 및 인력이 없어 자체적으로 용역수행하기는 불가능

그 결과 000에서는 연구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제출받은 원자력 기기검증 용역보고서에 000의 단순 검토표지만을 붙여 000 등 8개 업체에 제공⁷⁾하고 그 대가로 계 16억 9,740만 원의 수입을 부당하게 얻게 된 반면, 연구원은 같은 금액 상당의 수입을 얻지 못하였고 인력과 장비 무단·무상 사용으로 인한 손해 및 유류비 5,716만여 원⁸⁾ 등의 손해가 발생⁹⁾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기계연구원장은

[통보] 한국기계연구원의 인력·장비·유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끼친 손해금액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24조와 「민법」 제741조에 따라 송OO 등으로 하여금 배상하도록 하는 등 손해금액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주의] 앞으로 연구직원 창업자가 직위 등을 이용하여 한국기계연구원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창업기업의 사업수행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7) 최종적으로는 000에 제출됨

8) 2008. 3. 5.부터 2011. 5. 24.까지 142,524ℓ (147,569,856원)를 구매하고 000의 용역과 관련하여 55,213ℓ (추정금액: 57,167,736원 = 147,569,856원 × 55,213ℓ / 142,524ℓ)를 부당 사용함

9) 감사원에서 2012. 8. 23. 송OO에 대하여 배임혐의로 수사요청 후 검찰에서는 정당 수탁용역계약금액(부가세 포함) 1,811,770,200원을 손해로 인한 배임금액으로 2012. 12. 12. 구속기소하여 형사소송 중임

[별표]

XXX와 계약을 체결한 원자력 기기검증 용역 등 명세

(금액단위: 천 원)

연번	발주자 (의뢰처)	계약자	계약명	계약기간	금액	결과보고서 제출일
1	(OOO	ooo	고리1호기 도장재의 LOCA 환경 건전성시험	2008. 6. 2. ~ 2008. 9. 30.	77,000	2008. 8. 8.
2	OOO	"	원자력발전소용 안전등급 리밋스위치 with ECSA 기기검증	2008. 8. 1. ~ 2008. 9. 12.	55,000	2008. 11. 7.
3	OOO	"	모터 기능시험 및 기술자문 용역	2008. 10. 1. ~ 2009. 2. 19.	54,000	2009. 2. 19.
4	OOO	"	밸브 구동기 기기검증 시험연구	2009. 12. 1. ~ 2011. 2. 28.	473,000	진행 중
5	OOO	"	도장재 DBA 시험	2010. 1. 4. ~ 2010. 2. 28.	59,400	2010. 3. 11.
6	OOO	"	도장재 DBA 시험	2010. 2. 19. ~ 2010. 4. 21.	60,500	2010. 4. 30.
7	OOO	"	도장재 DBA 시험	2010. 3. 25. ~ 2010. 4. 30.	88,000	2010. 4. 30.
8	(OOO	"	도장재 DBA 시험	2010. 5. 31. ~ 2010. 7. 21.	77,000	2010. 8. 11.
9	OOO	"	도장재 DBA 시험	2010. 12. 27. ~ 2011. 5. 31.	143,000	2011. 3. 28. 2011. 6. 27.
10	OOO	"	공압구동기 시작품 Baseline 성능시험, 내진 및 내환경 기기검증 시험	2010. 10. 1. ~ 2011. 9. 30.	550,000	진행 중
11	OOO	"	도장재 DBA 시험	2011. 9. 1. ~ 2011. 12. 31.	60,500	2011. 12. 7.
합 계					1,697,400	

- 주: 1. 금액은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부가가치세 포함)
2. 1~3, 5~9, 11번의 9개 용역은 연구원에서 외주용역 없이 수행·종료되었고, 4, 10번의 2개 용역은 연구원에서 외주용역(비용은 OOO가 부담)을 주면서 수행 중(2012. 6. 12. 현재)
3. 4, 10번의 2개 용역(금액: 10억 2,300만 원)은 OOO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원에서 수행하다가 송OO이 2011년 9월 미국으로 파견을 가게 되면서, 위 용역수행을 마무리하기 위해 OOO가 연구원에 두 업체의 용역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탁계약을 체결(금액: 8,000만 원)하여 2012. 6. 12. 현재 연구원에서 수행 중
4. 8번의 용역은 송OO이 2011년 9월 미국으로 파견 가고서 김OO(파견근로자)를 통해 계약 체결한 것임

자료: 한국기계연구원 자료 재구성